



최근에 들어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산업구조고도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설립 · 운영

1. 서언

세계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개발 및 기술혁신은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시장과 경쟁 그리고 비교우위 핵심요소의 특성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경제의 핵심이 노동과 자본에서 과학기술로 이동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성 증가, 고용창출 및 고용구조의 변화 등을 수반하여 그 자체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발전 전략 수립과 함께 첨단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산업구조고도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

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인력 양성등과 함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개발성과가 확산되고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될 경우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증대되고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이 구축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외국인 성공사례에 단순히 집착하여 단기간 내의 시급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경제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대로의 기업문화, 연구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김 이 환 과장
과학기술처

2.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설립·운영

가. 추진배경

지난 20여년간 특정연구 개발사업 등 정부주도 연구 개발사업 수행과 민간부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는 유형·무형의 연구개발성과가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원이나 교수들의 주요관심은 학문적 활동 등 연구수행 자체에 주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이전 이외에 사업종료 후 이들 주관연구기관에 구축된 성과를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효율적 체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유도 와 신기술창업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이 과기처, 통산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정비되어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 확산, 대학별 벤처창업 지원활동 등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에서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등을 통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체제를 구축하고 그동안 축적된 연구개발성과와 경험을 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 확산,
대학별 벤처창업
지원활동 등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지난 9월 한국과학기술원에 설립하였다.

나. 기본 전략

신기술창업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어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역량과 자금 및 인력확보가 신기술 창업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신기술창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조세혜택 그리고 입주공간 마련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이를 수행·지원할 인력의 확보는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은 ① 체계적인 사전 기획사업 수행, ② 수요자 지향적 지원 ③ 관련기관간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은 직접적으로 신기술창업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게 되고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① 실질적으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 ② 신기

술창업기업의 생명력인 기술력의 확보 및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③ 예비창업단계부터 창업 후 일정기간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등 여러기관에 분산 수행되고 있는 관련사업을 신기술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이관하거나 연계하고,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출연연구소, 대학,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등 유관기관 및 타부처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 주요사업

새로 발족한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될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① 신기술기업이 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을 의뢰할 경우 총연구비중 일정범위내에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기업 수탁연구지원사업 ② 연구기관, 대학등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기업에 무상으로 기술실시권을 양허하고 보유기술을 신기술기업에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일정범위내에서 정부가 부담해주는 기술무상양허사업, ③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자문, 기술지도,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문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연구원창업지원사업으로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 창업을 준비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상업적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집중지원하고, 연구원창



업시 연구소 보유기술 및 장비/시설사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입주공간 제공과 자금지원 및 알선등을 통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원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신기술종합정보제공사업으로 정보수요자가 정보제공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기술자문, 상담 및 기술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화기술정보의 검색 제공과 정보수요자 편의를 위한 정보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장비/시설·시장정보 및 특허, S/W 등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특화기술정보의 DB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마련을 통한 인터넷과 기존의 연구전산망 및 과학기술정보유통망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정보의 검색·연구분석 지원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신기술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금, 전문인력, 연구장비/시설 등을 알선 지원하고 창업능력 배양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창업교실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등의 투자·용자 알선 지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과학기술자 유치사업과의 연계, 출연연구기관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테크노마트의 정기적 개최등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교류의 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둘째, 연구원창업지원사업
셋째,
신기술종합정보제공사업
넷째, 창업교실운영,
다섯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잔여공간을 활용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기술혁신센터(TIC),
창업보육센터(TBI)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술이나 특허 등 무형의 재산을 근거로 자금대출을 하여주는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잔여공간을 활용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기술혁신센터(TIC), 창업보육센터(TBI) 사업을 확대하여 2000년까지 2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가능하도록 대덕연구단지내 12,000평 규모의 첨단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여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한 창업회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입주기업의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결론

앞으로 과학기술처에서는 신기술창업지원단의 출범과 함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기획사업 수행과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이에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것으로써 당면과제인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산업구조고도화 개선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